

2024  
고2 문학  
천재(김)

### 2024 고2 문학 천재(김) | 2(2)(1) 혈의 누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직전 보강 유형

<혈의 누>의 갈래상·형식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내용을 이해하고 푸는 문제가 최다 빈출되었습니다. <혈의 누>는 개화기의 시대적 모습을 드러내며 개화 의식의 고취와 개화사상, 자유연애 사상, 신교육 사상 등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1894년 청일 전쟁 ~ 광무 6년(1902년)'으로 개화기의 상황을 등장인물들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작품은 '고사, 격언' 등의 인용투에서 벗어난 '서사, 묘사' 중심의 서술 방식으로 해당 작품은 언문일치에 가까워진 작품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또한 해당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으로 서술자의 개입이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한 마음 없이 정거장으로 나가니, 그때 일반(一番) 기차에 떠나려 하는 행인들이 정거장으로 모여 드는지라. 옥련의 마음에 동경이나 가고 싶으나 동경까지 갈 기차표 살 돈은 없고 다만 이십 전이 있는 지라. 옥련이가 대판만 떠나서 어디든지 가면 남의 집에 봉공(奉公)하고 있을 터이라 결심하고 자목 정거장까지 가는 기차표를 사서 일반 기차를 타니, 삼 등차에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옥련이가 앉을 곳을 얻지 못하고 섰는데 등 뒤에서 웬 서생이 혼자 중얼중얼하는 말이,

“웬 계집아이가 남의 앞에 와 섰다.”하는 소리에 옥련이가 돌아다보니 나이 열 칠팔 세 되고 얼굴은 별에 그을려 익은 복숭아 같고 코는 우뚝 서고 눈은 만판 정신기 있는데, 입기는 양복을 입었으나 양복은 처음 입은 사람같이 서툴러 보이는지라. 옥련이가 돌아다보는 것을 보더니 또 조선말로 혼자 하는 말이, “그 계집아이 똑똑하다. 재주 있겠다. 우리나라 계집아이 같으면 저러한 것들이 판판이 놀겠지. 여기서 저러한 것들도 모두 공부를 한다 하니 저것은 무엇하는 계집아이인지.”

그러한 소리를 곁의 사람이 아무도 못 알아들어나 옥련의 귀에는 알아들을 뿐이 아니라, 대판 온 지 몇 해 만에 고국 말소리를 처음 듣는지라. 반갑기가 측량없으나, 계집아이 마음이라 먼저 말하기도 부끄러운 생각이 있어서 말을 못 하고, 옥련이도 혼잣말로 서생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말이,

“어디 가 좀 앉을 곳이 있어야지, 서서 갈 수가 있나.”

하는 소리에, 뒤에 있던 서생이 이상히 여겨서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조선 사람인가, 나는 일본 계집아이를 보았더니 조선말을 하네?”

하더니 서슴지 아니하고 말을 묻는다.

“이애, 네가 조선 사람이 아니냐?”

“네, 조선 사람이오.”

(중략)

옥련이가 미국 화성돈에 다섯 해를 있어서 하루도 학교에 아니 가는 날이 없이 다니며 공부를 하는데, 재주 있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그 학교 여학생 중에는 제일 칭찬을 듣는지라.

그때 옥련이가 고등 소학교에서 졸업 우등생으로 옥련의 이름과 옥련의 사적이 화성돈 신문에 났는데, 그 신문을 보고 이상히 기뻐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어찌 그렇게 기쁘던지 부지중 눈물이 쏟아진다.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도리어 의심을 낸다. 의심 중에 혼잣말로 중얼중얼한다.

“조선 사람의 일을 영서로 번역한 것이라 혹 번역이 잘못되었나. 내가 미국에 온 지가 십 년이나 되었으나 영문에 서툴러서 보기를 잘못 보았나.”

그렇게 다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성명은 김관일인데, 그 딸의 이름이 옥련이라. 일청 전쟁 났을 때에 그 딸의 사생을 모르고 미국에 왔는데, 그때 화성돈 신문에는, 말은 옥련의 학교 성적과, 평양 사람으로 일곱 살에 일본 대판 가서 심상소학교를 졸업하고 그 길로 미국 화성돈에 와서 고등 소학교에서 졸업하였다한 간단한 말이라. 김 씨가 분명히 자기의 딸이라고는 질언할 수 없으나, 옥련이라 하는 이름과 평양 사람이라는 말과 일곱 살에 집 떠났다 하는

말은 김관일의 마음에 정녕 내 딸이라고 생각 아니 할 수도 없는지라. 김 씨가 그 학교에 찾아가니, 그때는 그 학교에서 학도 졸업식 후의 서중 휴학이라, 학교에 아무도 없는고로 물을 곳이 없는지라, 김 씨가 옥련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더라.

옥련이가 졸업하던 날에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호텔로 돌아가니, 주인은 치하하면서 옥련의 얼굴빛을 이상히 보더라.

옥련이가 수심이 첩첩한 모양으로 저녁 요리도 먹지 아니하고 서산에 떨어지는 해를 치어다보며 탄식하더라.

그때 마침 밖에 손이 와서 찾는다 하는데, 명함을 받아 보더니 옥련이가 얼굴빛을 천연히 고치고 손을 들어오라 하니, 그 손이 보이를 따라 들어오거늘 옥련이가 선뜻 일어나며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인사하고 테이블 앞에서 마주 향하여 의자에 걸터앉으니, 그 손은 옥련이와 일본 대판서 동행하던 서생인데 그 이름은 구완서라.

- 이인직, <혈의 누>

**1. 윗글과 같은 갈래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속 주인공의 저항 의식이 나타난다.
- ② 시·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액자식 구성을 사용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 ⑤ 우연성이 완전하게 사라지고 사건 전개의 필연성이 나타난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 같은 불효의 딸을 만나 보시고 기쁘신 마음이 있거든 구 씨를 찾아보시고 처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관일이가 그 말을 듣더니, 그 길로 옥련이를 데리고 구 씨의 유하는 처소로 찾아가니, 구 씨는 김관일을 만나 보매 옥련의 부친을 본 것 같지 아니하고 제 부친이나 만난 듯이 반가운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은 옥련의 기뻐하는 마음이 내 마음 기쁜 것이나 다름없는 데서 나오는 마음이요, 김 씨는 구 씨를 보고 내 딸 옥련을 만나 본 것이나 다름없이 반가우니,

그 두 사람의 마음이 그러할 일이라. 김 씨가 구 씨를 대하여 하는 말이 간단한 두 마디뿐이라.

한 마디는 옥련이가 신세 지은 처사요, 한 마디는 구 씨가 고국에 돌아간 뒤에 옥련으로 하여금 구 씨의 기치를 받들고 백년가약 맺기를 원하는지라.

구 씨는 본래 활발하고 거칠 것 없이 수작하는 사람이라 옥련이를 물끄러미 보더니,

“이애 옥련아, 어- 실체(失體)하였구. 남의 집 처녀더러 또 해라하였구나. 우리가 입으로 조선말은 하더라도 마음에는 서양 문명한 풍속이 젖었으니, 우리는 혼인을 하여도 서양 사람과 같이 부모의 명령을 좇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부부 될 마음이 있으면 서로 직접 하여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나 우선 말부터 영어로 수작하자. 조선말로 하면 입에 익은 말로 외짝 해라하기 불안하다.”

하면서 구 씨가 영어로 말을 하는데, 구 씨의 학문은 옥련이보다 대단히 높으나 영어는 옥련이가 구 씨의 선생 노릇이라도 할 만한 터이라. 그러나 구 씨는 서투른 영어로 수작을 하는데, 옥련이는 조선말로 단정히 대답하더라.

김관일은 딸의 혼인 언론을 하다가 구 씨가 서양 풍속으로 직접 언론하자 하는 서술에 옥련의 혼인 언약에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이 가만히 앉았더라.

옥련이는 아무리 조선 계집아이이나 학문도 있고 개명한 생각도 있고, 동서양으로 다니면서 문견(聞見)이 높은지라. 서슴지 아니하고 혼인 언론 대답을 하는데, 구 씨의 소청이 있으니, 그 소청인즉 옥련이가 구 씨와 같이 몇 해든지 공부를 더 힘써 하여 학문이 유여한 후에 고국에 돌아가서 결혼하고, 옥련이는 조선 부인 교육을 맡아 하기를 청하는 유지(有志)한 말이라. 옥련이가 구 씨의 권하는 말을 듣고 조선 부인 교육할 마음이 간절하여 구 씨와 혼인 언약을 맺으니, 구 씨의 목적은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를 독일국(獨逸國)같이 연방도를 삼되, 일본과 만주를 한데 합하여 문명한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비사맥 같은 마음이요, 옥련이는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 부인의 지식을 넓혀서 남자에게 압제받지 말고 남자와 동등 권리를 찾게 하며, 또 부인도 나라에 유익한 백성이 되고 사회상에 명예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할 마음이라.

세상에 제 목적을 제가 자기하는 것같이 즐거운 일은 다시 없는지라. 구완서와 옥련이가 나이 어려서 외국에 간 사람들이라. 조선 사람이 이렇게 야만

되고 이렇게 용렬한 줄을 모르고, 구 씨든지 옥련이 듣지 조선에 돌아오는 날은 조선도 유지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학문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를 찬성하여 구 씨도 목적대로 되고 옥련이도 제 목적대로 조선 부인이 일제히 내 교육을 받아서 날 날이 나와 같은 학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려니 생각하고, 일변으로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제 나라 형편 모르고 외국에 유학한 소년 학생 의 기에서 나오는 마음이라.

- 이인직, <혈의 누>

**2. 밑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관찰자의 위치에서 서사 세계를 관망하는 가운데 인물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전지자의 위치에서 서사 세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전지자의 위치에서 서사 세계에 개입하는 가운데 인물의 의식과 행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전지자의 위치에서 서사 세계에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한 마음 없이 정거장으로 나가니, 그때 일번(一番) 기차에 떠나려 하는 행인들이 정거장으로 모여드는지라. 옥련의 마음에 동경이나 가고 싶으나 동경까지 갈 기차표 살 돈은 없고 다만 이십 전이 있는지라. 옥련이가 대판만 떠나서 어디든지 가면 남의 집에 봉공(奉公)하고 있을 터이라 결심하고 자목정거장까지 가는 기차표를 사서 일번 기차를 타니, 삼등차에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옥련이가 앉을 곳을 얻지 못하고 섰는데 등 뒤에서 웬 서생이 혼자 종얼종얼하는 말이,

“웬 계집아이가 남의 앞에 와 섰다.”

하는 소리에 옥련이가 돌아다보니 나이 열 칠팔세 되고 얼굴은 별에 그을려 익은 복숭아 같고 코는

우뚝 서고 눈은 만판 정신기 있는데, 입기는 양복을 입었으나 양복은 처음 입은 사람같이 서툴러 보이는 지라. 옥련이가 돌아다보는 것을 보더니 또 조선말로 혼자 하는 말이,

“그 계집아이 똑똑하다. 재주 있겠다. 우리나라 계집아이 같으면 저러한 것들이 판판이 놀겠지. 여기서 저런 것들도 모두 공부를 한다 하니 저것은 무엇하는 계집아이인지.”

그러한 소리를 곁의 사람이 아무도 못 알아들으나 옥련의 귀에는 알아들을 뿐이 아니라, 대판 온 지 몇해 만에 고국 말소리를 처음 듣는지라. 반갑기가 측량없으나, 계집아이 마음이라 먼저 말하기도 부끄러운 생각이 있어서 말을 못 하고, 옥련이도 혼잣말로 서생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말이,

“어디 가 좀 앉을 곳이 있어야지, 서서 갈 수가 있나.”

하는 소리에, 뒤에 있던 서생이 이상히 여겨서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조선 사람인가, 나는 일본 계집아리로 보았더니 조선말을 하네?”

하더니 서슴지 아니하고 말을 묻는다.

“이애, 네가 조선 사람이 아니냐?”

“네, 조선 사람이오.”

“그러면 몇 살에 와서 몇 해가 되었느냐?”

“일곱 살에 와서 지금 열한 살이 되었소.”

“와서 무엇 하였느냐?”

“심상소학교에서 공부하고 어제가 졸업식 하던 날이오.”

“너는 나보다 낫구나. 나는 이제 공부하러 미국으로 가려 하는데, 말도 다르고 글도 다른 미국을 가면 글자 한 자 모르고 말 한마디 모르는 사람이 어찌 고생을 할는지, 너는 일본에 온 지가 사오 년이 되었다 하니 이제는 고생을 다 면하였겠구나. 어린아이가 공부하러 여기까지 왔으니 참 가륙한 노릇이다.”

“당초에 여기 올 때에 공부할 마음으로 왔으면 칭찬을 들어도 부끄럽지 아니하겠으나, 운수 불행하여 고생길로 여기까지 왔으니 칭찬을 들어도…….”

하면서 목이 메는 소리로 눈에 눈물이 가랑가랑하여 고개를 살짝 수그린다.

서생이 물끄러미 보고 서로 아무 말이 없는데, 정거장 호각 한 소리에 기차 화통에서 흑운(黑雲) 같은 연기를 흑흑 내뿜으면서 기차가 달아난다.

(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 같은 불효의 딸을 만나 보시고 기쁘신 마음이 있거든 구 씨를 찾아보시고 치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관일이 그 말을 듣더니, 그 길로 옥련이를 데리고 구 씨의 유하는 처소로 찾아가니, 구 씨는 김관일을 만나 보매 옥련의 부친을 본 것 같지 아니하고 제 부친이나 만난 듯이 반가운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은 옥련의 기뻐하는 마음이 내 마음 기쁜 것이나 다름없는 데서 나오는 마음이요, 김 씨는 구 씨를 보고 내 딸 옥련을 만나 본 것이나 다름없이 반가우니, 그 두 사람의 마음이 그러할 일이라. 김 씨가 구 씨를 대하여 하는 말이 간단한 두 마디뿐이라.

한 마디는 옥련이가 신세 지은 치사요, 한 마디는 구 씨가 고국에 돌아간 뒤에 옥련으로 하여금 구 씨의 기치를 받들고 백년가약 맺기를 원하는지라.

구 씨는 본래 활발하고 거칠 것 없이 수작하는 사람이라 옥련이를 물끄러미 보더니,

“이에 옥련아, 어- 실체(失體)하였구. 남의 집 처녀더러 또 해라하였구나. 우리가 입으로 조선말은 하더라도 마음에는 서양 문명한 풍속이 젖었으니, 우리는 혼인을 하여도 서양 사람과 같이 부모의 명령을 좇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부부 될 마음이 있으면 서로 직접 하여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나 우선 말부터 영어로 수작하자. 조선말로 하면 입에 익은 말로 외짝 해라하기 불안하다.”

하면서 구 씨가 영어로 말을 하는데, 구 씨의 학문은 옥련이보다 대단히 높으나 영어는 옥련이가 구 씨의 선생 노릇이라도 할 만한 터이라. 그러나 구 씨는 서투른 영어로 수작을 하는데, 옥련이는 조선말로 단정히 대답하더라.

김관일은 딸의 혼인 언론을 하다가 구 씨가 서양 풍속으로 직접 언론하자 하는 서슬에 옥련의 혼인 언약에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이 가만히 앉았더라.

옥련이는 아무리 조선 계집아이이나 학문도 있고 개명한 생각도 있고, 동서양으로 다니면서 문견(聞見)이 높은지라. 서슴지 아니하고 혼인 언론 대답을 하는 데, 구 씨의 소청이 있으니, 그 소청인즉 옥련이가 구 씨와 같이 몇 해든지 공부를 더 힘써 하여 학문이 유여한 후에 고국에 돌아가서 결혼하고, 옥련이는 조선 부인 교육을 맡아 하기를 청하는 유지(有志)한 말이라. 옥련이가 구 씨의 권하는 말을 듣고 조선 부인 교육할 마음이 간절하여 구 씨와 혼인 언약을 맺으니, 구 씨의 목적은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

한 뒤에 우리나라를 독일국(獨逸國)같이 연방도를 삼되, 일본과 만주를 한데 합하여 문명한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비사맥 같은 마음이요, 옥련이는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 부인의 지식을 넓혀서 남자에게 압제받지 말고 남자와 동등 권리를 찾게 하며, 또 부인도 나라에 유익한 백성이 되고 사회상에 명예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할 마음이라.

세상에 제 목적을 제가 자기하는 것같이 즐거운 일은 다시 없는지라. 구완서와 옥련이가 나이 어려서 외국에 간 사람들이라. 조선 사람이 이렇게 야만되고 이렇게 용렬한 줄을 모르고, 구 씨든지 옥련이든지 조선에 돌아오는 날은 조선도 유지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학문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를 찬성하여 구 씨도 목적대로 되고 옥련이도 제 목적대로 조선 부인이 일제히 내 교육을 받아서 날 날이 나와 같은 학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려니 생각하고, 일변으로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제 나라 형편 모르고 외국에 유학한 소년 학생의 기에서 나오는 마음이라.

구 씨와 옥련이가 그 목적대로 되든지 못 되든지 그것은 후의 일이거나, 그 날은 두 사람의 마음에는 혼인 언약의 좋은 마음은 오히려 둘째가 되니, 옥련 낙지(落地) 이후에는 이러한 즐거운 마음이 처음이라.

김관일은 옥련을 만나 보고 구완서를 사뭇감으로 정하고, 구 씨와 옥련의 목적이 그렇듯 기이한 말을 들으니, 김 씨의 좋은 마음도 측량할 수 없는지라.

- 이인직, <혈의 누>

### 3. <보기>는 학생이 윗글에 대해 학습한 내용과 메모이다. 학생이 메모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신소설은 개화기에 창작된 소설 중 기존 양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양식과 사상, 이념을 다룬 소설을 말합니다. 고전 소설적 요소와 근대 소설적 요소가 공존하는 과도기적 소설이라 할 수 있지요.”

▶ 윗글을 읽고 학생이 정리한 메모

	<혈의 누>에서	<혈의 누>에서
--	----------	----------

	드러난 고전 소설의 특징	드러난 신소설의 특징
(가)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집자적 논평 ...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사, 묘사의 서술 방식 활용 ... ㉡</li> <li>• 신문물을 소재로 활용하며 사건의 개연성 부여 ... ㉢</li> </ul>
(나)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라'와 같은 문어체 사용 ...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흔 풍습 비판 및 자유연애 예찬</li> <li>• 남녀평등, 신교육의 필요성 역설 ... ㉤</li> </ul>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옥련이가 미국 화성돈에 다섯 해를 있어서 하루도 학교에 아니 가는 날이 없이 다니며 공부를 하는데, 재주 있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그 학교 여학생 중에는 제일 칭찬을 듣는지라.

그때 옥련이가 고등 소학교에서 졸업 우등생으로 옥련의 이름과 옥련의 사적이 화성돈 신문에 났는데, 그 신문을 보고 이상히 기뻐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어찌 그렇게 기뻐던지 부지중 눈물이 쏟아진다.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도리어 의심을 낸다. 의심 중에 혼잣말로 중얼중얼한다.

“조선 사람의 일을 영서로 번역한 것이라 혹 번역이 잘못되었나. 내가 미국에 온 지가 십 년이나 되었

으나 영문에 서툴러서 보기를 잘못 보았나.”

그렇게 다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성명은 김관일인데, 그 딸의 이름이 옥련이라. 일청 전쟁 났을 때에 그 딸의 사생을 모르고 미국에 왔는데, 그때 화성돈 신문에는, 말은 옥련의 학교 성적과, 평양 사람으로 일곱 살에 일본 대판 가서 심상소학교를 졸업하고 그 길로 미국 화성돈에 와서 고등 소학교에서 졸업하였다한 간단한 말이라. 김 씨가 분명히 자기의 딸이라고는 질언할 수 없으나, 옥련이라 하는 이름과 평양 사람이라는 말과 일곱 살에 집 떠났다 하는 말은 김관일의 마음에 정녕 내 딸이라고 생각 아니 할 수도 없는지라. 김 씨가 그 학교에 찾아가니, 그때는 그 학교에서 학도 졸업식 후의 서중 휴학이라, 학교에 아무도 없는고로 물을 곳이 없는지라, 김 씨가 옥련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더라.

옥련이가 졸업하던 날에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호텔로 돌아가니, 주인은 치하하면서 옥련의 얼굴빛을 이상히 보더라.

옥련이가 수심이 첩첩한 모양으로 저녁 요리도 먹지 아니하고 서산에 떨어지는 해를 치어다보며 탄식하더라.

그때 마침 밖에 손이 와서 찾는다 하는데, 명함을 받아 보더니 옥련이가 얼굴빛을 천연히 고치고 손을 들어오라 하니, 그 손이 보이를 따라 들어오거늘 옥련이가 선뜻 일어나며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인사하고 테이블 앞에서 마주 향하여 의자에 걸터앉으니, 그 손은 옥련이와 일본 대판서 동행하던 서생인데 그 이름은 구완서라.

(나) 하루는 보이가 신문지 한 장을 가지고 옥련의 방으로 오더니 그 신문을 옥련의 앞에 펼쳐 놓고 보이의 손가락이 신문지 광고를 가리킨다.

옥련이가 그 광고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눈물이 펄펄 쏟아지면서 얼굴은 발개지고 웃음 반 눈물 반이라.

옥련이가 좋은 마음에 띄어서 광고를 끝까지 다 보지 못하고 우두커니 앉았다가 또 광고를 본다. 옥련의 마음에 다시 의심이 난다. 일전 꿈에 모란봉에 가서 우리 부모 산소에 갔던 일이 그것이 꿈인가. 오늘 신문지의 광고를 보는 것이 꿈인가. 한 번은 영어로 보고 한 번은 조선말로 보다가 필경은 한문과 조선 언문을 섞어 번역하여 놓고 보더라.

**광고**

지나간 열사흘날 황색 신문 잡보에 한국 여학생 김옥련이가 아무 학교 졸업 우등생이라는 기사가 있기로 그 유하는 호텔을 알고자 하여 이에 광고하오니, 누구시든지 옥련의 유하는 호텔을 이 고백인에게 알려 주시면 상당한 금으로 십 류(溜)를 양정할사.  
 조선 평안도 평양인 김관일 고백 현수.....

의심 없는 옥련의 부친이 한 광고다.

“여보 보이, 이 신문을 가지고 날 따라가면 우리 부친이 십 류의 상금을 줄 것이니 지금으로 갑시다.”

“내가 상금 탈 공은 없으니 상금은 원치 아니하나 귀양(貴嬢)을 배행하여 가서 부녀 서로 만나 기뻐하시는 모양 보았으면 나도 이 호텔에서 몇 해 간 귀양을 모시고 있던 정분에 귀양을 따라 기뻐하고자 합니다.”

옥련이가 그 말을 듣고 더욱 기뻐하여 보이를 데리고 그 부친 있는 처소를 찾아가니 십 년 풍상에서 서로 환형(換形)이 된지라, 서로 보고 서로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라. 옥련이가 신문 광고와 명함 한 장을 가지고 그 부친 앞으로 가서 남에게 처음 인사하듯 대단히 서먹한 인사를 하다가 서로 분명한 말을 듣더니, 옥련이가 일곱 살에 응석하던 마음이 새로이 나서 부친의 무릎 위에 얼굴을 폭 숙이고 소리 없이 우는데, 김관일의 눈물은 옥련의 머리 뒤에 떨어지고, 옥련의 눈물은 그 부친의 무릎을 적신다.

- 이인직, <혈의 누>

**5.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토의한 내용이다. 적절한 의견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옥련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를 나가는 모습에서 옥련이가 성실하고 총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ㄴ. 김관일이 옥련을 하대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는 모습에서 그의 사려 깊은 성품을 알 수 있어.

ㄷ. 십 년 만에 재회한 아버지 앞에서 우는 옥련이의 모습을 통해 어린 속마음을 알 수 있어.

ㄹ. 옥련이의 기쁜 일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보이의 태도를 통해 서술자가 보이의 성격을 직접 제시해주었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완서는 옥련의 공적이 실린 기사를 보고 기뻐했다.
- ② 보이는 김관일을 옥련에게 안내한 후 상금을 받았다.
- ③ 구완서는 방학 중에 옥련이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갔다.
- ④ 김관일은 딸의 생사를 모른 채 미국에 온 지 십년이 되었다.
- ⑤ 옥련이는 우등생으로 졸업한 뒤 기쁜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왔다.

신유형

<혈의 누>에는 구절에 기호를 붙여 그 의미를 묻는 문제, 단어의 뜻풀이를 묻는 문제, 인물의 성격 및 가치관에 대해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작품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서술자의 서술과 인물의 대화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파악하여야 하며, 옥련이 청일 전쟁의 와중에 부모와 헤어지고 일본, 미국 등지에서 유학하며 개화기 신학문의 세례를 받는 개화 여성이라는 것과 구완서가 기차 안에서 옥련을 만나 미국 유학을 같이 가며 유학 중 옥련과 약혼을 하는 인물로 부국강병의 뜻을 품은 유학생인 것을 알고 돌을 통해 나타나는 개화기의 시대의 지식인들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한 마음 없이 정거장으로 나가니, 그때 일번(一番) 기차에 떠나려 하는 행인들이 정거장으로 모여드는지라. 옥련의 마음에 동경이나 가고 싶으나 동경까지 갈 기차표 살 돈은 없고 다만 ㉠이십 전이 있는지라. 옥련이가 대판만 떠나서 어디든지 가면 남의 집에 ㉡봉공(奉公)하고 있을 터이라 결심하고 ㉢자목 정거장까지 가는 기차표를 사서 일번 기차를 타니, 삼등차에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옥련이가 앉을 곳을 얻지 못하고 섰는데 등 뒤에서 웬 서생이 혼자 중얼중얼하는 말이,

“웬 ㉣계집아가가 남의 앞에 와 섰다.”하는 소리에 옥련이가 돌아다보니 나이 열 칠팔 세 되고 얼굴은 벌써 그을려 익은 복숭아 같고 코는 우뚝 서고 눈은 만판 정신기 있는데, 입기는 양복을 입었으나 양복은 처음 입은 사람같이 서툴러 보이는지라. 옥련이가 돌아다보는 것을 보더니 또 조선말로 혼자 하는 말이, “그 계집아이 똑똑하다. 재주 있겠다. ㉤우리나라 계집아이 같으면 저러한 것들이 판판이 놀겠지. 여기서 저러한 것들도 모두 공부를 한다 하니 저것은 무엇하는 계집아이인지.”

그러한 소리를 곁의 사람이 아무도 못 알아들어나 옥련의 귀에는 알아들을 뿐이 아니라, ㉥대판 온 지 몇 해 만에 고국 말소리를 처음 듣는지라. 반갑기가 측량없으나, 계집아이 마음이라 먼저 말하기도 부끄러운 생각이 있어서 말을 못 하고, 옥련이도 혼잣말

로 서생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말이,  
“어디 가 좀 앉을 곳이 있어야지, 서서 갈 수가 있나.”

하는 소리에, 뒤에 있던 서생이 이상히 여겨서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조선 사람인가, 나는 일본 계집아리로 보았더니 조선말을 하네?”

하더니 서슴지 아니하고 말을 묻는다.

“이애, ㉦네가 조선 사람이 아니냐?”

“네, 조선 사람시오.”

(중략)

옥련이가 미국 ㉧화성돈에 다섯 해를 있어서 하루도 학교에 아니 가는 날이 없이 다니며 공부를 하는데, 재주 있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그 학교 여학생 중에는 제일 칭찬을 듣는지라.

그때 옥련이가 고등 소학교에서 졸업 우등생으로 옥련의 이름과 옥련의 사적이 화성돈 신문에 났는데, 그 신문을 보고 이상히 기뻐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어찌 그렇게 기쁘던지 부지중 눈물이 쏟아진다.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도리어 의심을 낸다. 의심 중에 혼잣말로 중얼중얼한다.

“조선 사람의 일을 영서로 번역한 것이라 혹 번역이 잘못되었나. 내가 미국에 온 지가 십 년이나 되었으나 영문에 서툴러서 보기를 잘못 보았나.”

그렇게 ㉨다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성명은 김관일인데, 그 딸의 이름이 옥련이라. 일청 전쟁 났을 때에 그 딸의 사생을 모르고 미국에 왔는데, 그때 화성돈 신문에는, 말은 옥련의 학교 성적과, 평양 사람으로 일곱 살에 일본 대판 가서 심상소학교를 졸업하고 그 길로 미국 화성돈에 와서 고등 소학교에서 졸업하였다한 간단한 말이라. 김 씨가 분명히 자기의 딸이라고는 ㉩질언할 수 없으나, 옥련이라 하는 이름과 평양 사람이라는 말과 일곱 살에 집 떠났다 하는 말은 김관일의 마음에 정녕 내 딸이라고 생각 아니 할 수도 없는지라. 김 씨가 그 학교에 찾아가니, 그때는 그 학교에서 학도 졸업식 후의 ㉪서중 휴학이라, 학교에 아무도 없었고 물물 곳이 없는지라, 김 씨가 옥련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더라.

옥련이가 졸업하던 날에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호텔로 돌아가니, 주인은 치하하면서 옥련의 얼굴빛을 이상히 보더라.

옥련이가 수심이 첩첩한 모양으로 저녁 요리도 먹지 아니하고 서산에 떨어지는 해를 치어다보며 탄식

하더라.

그때 마침 밖에 손이 와서 찾는다 하는데, 명함을 받아 보더니 옥련이가 얼굴빛을 천연히 고치고 손을 들어오라 하니, 그 손이 보이를 따라 들어오거늘 옥련이가 선뜻 일어나며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인사하고 테이블 앞에서 마주 향하여 의자에 걸터앉으니, 그 손은 옥련이와 일본 대판서 동행하던 서생인데 그 이름은 구완서라.

- 이인직, <혈의 누>

6. 뒷글에서 만남의 개연성을 드러내는 소재로 옳은 것은?

- ① 양복
- ② 명함
- ③ 심산소학교
- ④ 기차
- ⑤ 나막신

7. 다음 <보기>의 뜻풀이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열심히 일하다'라는 뜻
- ㉡: 오사카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 ㉢: 오사카에 있는 이바라키시
- ㉣: 정이 많다 또는 정분이 두텁다는 뜻
- ㉤: '사실을 있는 대로 딱 잘라서 말하다'라는 뜻
- ㉦: 추운 날씨를 고려한 방학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⑤ ㉡, ㉢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근대 서구 문물로, 인물들 간의 만남에 개연성을 부여해 준다.
- ② ㉡: 김관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③ ㉢: 조선 여성들이 공부에 힘쓰지 않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 ④ ㉣: 서생은 옥련을 아니꼽게 여겨서 반발하고 있다.
- ⑤ ㉤: 옥련이 가려는 목적지로, 옥련과 서생의 이별을 암시한다.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옥련이가 미국 화성돈에 다섯 해를 있어서 하루도 학교에 아니 가는 날이 없이 다니며 공부를 하는데, 재주 있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그 학교 여학생 중에는 제일 칭찬을 듣는지라.

그때 옥련이가 고등 소학교에서 졸업 우등생으로 옥련의 이름과 옥련의 사적이 화성돈 신문에 났는데, 그 신문을 보고 이상히 기뻐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어찌 그렇게 기쁘던지 부지중 눈물이 쏟아진다.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도리어 의심을 낸다. 의심 중에 혼잣말로 중얼중얼한다.

“조선 사람의 일을 영서로 번역한 것이라 혹 번역이 잘못되었나. 내가 미국에 온 지가 십 년이나 되었으나 영문에 서툴러서 보기를 잘못 보았다.”

그렇게 다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성명은 김관일인데, 그 딸의 이름이 옥련이라. 일청 전쟁 났을 때에 그 딸의 사생을 모르고 미국에 왔는데, 그때 화성돈 신문에, 말은 옥련의 학교 성적과, 평양 사람으로 일곱 살에 일본 대판 가서 심산소학교를 졸업하고 그 길로 미국 화성돈에 와서 고등 소학교에서 졸업하였다한 간단한 말이라. 김 씨가 분명히 자기의 딸이라고는 질언할 수 없으나, 옥련이라 하는 이름과 평양 사람이라는 말과 일곱 살에 집 떠났다 하는 말은 김관일의 마음에 정녕 내 딸이라고 생각 아닐 수도 없는지라. 김 씨가 그 학교에 찾아가니, 그때는 그 학교에서 학도 졸업식 후의 서중 휴학이라, 학교에 아무도 없는고로 물을 곳이 없는지라, 김 씨가 옥련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더라.

옥련이가 졸업하던 날에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호

텔로 돌아가니, 주인은 치하하면서 옥련의 얼굴빛을 이상히 보더라.

옥련이가 수심이 첩첩한 모양으로 저녁 요리도 먹지 아니하고 서산에 떨어지는 해를 치어다보며 탄식하더라.

그때 마침 밖에 손이 와서 찾는다 하는데, 명함을 받아 보더니 옥련이가 얼굴빛을 천연히 고치고 손을 들어오라 하니, 그 손이 보이를 따라 들어오거늘 옥련이가 선뜻 일어나며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인사하고 테이블 앞에서 마주 향하여 의자에 걸터앉으니, 그 손은 옥련이와 일본 대판서 동행하던 서생인데 그 이름은 구완서라.

(나) 하루는 보이가 신문지 한 장을 가지고 옥련의 방으로 오더니 그 신문을 옥련의 앞에 펼쳐 놓고 보이의 손가락이 신문지 광고를 가리킨다.

옥련이가 그 광고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눈물이 펄펄 쏟아지면서 얼굴은 발개지고 웃음 반 눈물 반이라.

옥련이가 좋은 마음에 띄어서 광고를 끝까지 다 보지 못하고 우두커니 앉았다가 또 광고를 본다. 옥련의 마음에 다시 의심이 난다. 일전 꿈에 모란봉에 가서 우리 부모 산소에 갔던 일이 그것이 꿈인가. 오늘 신문지의 광고를 보는 것이 꿈인가. 한 번은 영어로 보고 한 번은 조선말로 보다가 필경은 한문과 조선 언문을 섞어 번역하여 놓고 보더라.

**광고**  
 지나간 열사흘날 황색 신문 잡보에 한국 여학생 김옥련이가 아무 학교 졸업 우등생이라는 기사가 있기로 그 유하는 호텔을 알고자 하여 이에 광고하오니, 누구시든지 옥련의 유하는 호텔을 이 고백인에게 알려 주시면 상당한 금으로 십 류(溜)를 양정할사.  
 조선 평안도 평양인 김관일 고백 현수……

의심 없는 옥련의 부친이 한 광고다.

“여보 보이, 이 신문을 가지고 날 따라가면 우리 부친이 십 류의 상금을 줄 것이니 지금으로 갑시다.”

“내가 상금 탈 공은 없으니 상금은 원치 아니하나 귀양(貴孃)을 배행하여 가서 부녀 서로 만나 기뻐하

시는 모양 보았으면 나도 이 호텔에서 몇 해 간 귀양을 모시고 있던 정분에 귀양을 따라 기뻐하고자 합니다.”

옥련이가 그 말을 듣고 더욱 기뻐하여 보이를 데리고 그 부친 있는 처소를 찾아가니 십 년 풍상에서 서로 환형(換形)이 된지라, 서로 보고 서로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라. 옥련이가 신문 광고와 명함 한 장을 가지고 그 부친 앞으로 가서 남에게 처음 인사하듯 대단히 서먹한 인사를 하다가 서로 분명한 말을 듣더니, 옥련이가 일곱 살에 응석하던 마음이 새로이 나서 부친의 무릎 위에 얼굴을 꼭 숙이고 소리 없이 우는데, 김관일의 눈물은 옥련의 머리 뒤에 떨어지고, 옥련의 눈물은 그 부친의 무릎을 적신다.

- 이인직, <혈의 누>

**9. 다음은 윗글을 출판하기 위해 ○○ 출판회사에서 실시한 회의 중 일부이다. 김 과장의 의견에 적절한 답변을 제시한 사람을 고른 것은?**

<보기>

김 과장: <혈의 누>는 오늘날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 많이 있어, 이에 대한 해설을 신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화성돈을 워싱턴처럼 번역해보려고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장: 저는 ‘풍상’이라는 단어를 ‘시련과 고난’으로 바꾸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차장: 저는 ‘필경’이라는 단어를 ‘마침내’라는 단어로 바꾸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대리: 저는 ‘다심하다’라는 단어의 해설을 ‘사실을 있는 대로 딱 잘라서 말하다’처럼 달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원: 저는 ‘질언하다’라는 단어의 해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거나 걱정하는 게 많다’처럼 달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① 이 부장, 최 차장
- ② 이 부장, 박 대리
- ③ 이 부장, 이 사원
- ④ 최 차장, 박 대리
- ⑤ 박 대리, 이 사원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 같은 불효의 딸을 만나 보시고 기쁘신 마음이 있거든 구 씨를 찾아보시고 처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관일이 그 말을 듣더니, 그 길로 옥련이를 데리고 구 씨의 유하는 처소로 찾아가니, 구 씨는 김관일을 만나 보매 옥련의 부친을 본 것 같지 아니하고 제 부친이나 만난 듯이 반가운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은 옥련의 기뻐하는 마음이 내 마음 기쁜 것이나 다름없는 데서 나오는 마음이요, 김 씨는 구 씨를 보고 내 딸 옥련을 만나 본 것이나 다름없이 반가우니, 그 두 사람의 마음이 그러할 일이라. 김 씨가 구 씨를 대하여 하는 말이 간단한 두 마디뿐이라.

한 마디는 옥련이가 신세 지은 처사요, 한 마디는 구 씨가 고국에 돌아간 뒤에 옥련으로 하여금 구 씨의 기치를 받들고 백년가약 맺기를 원하는지라.

㉠구 씨는 본래 활발하고 거칠 것 없이 수작하는 사람이라 옥련이를 물끄러미 보더니,

“㉡이에 옥련아, 어- 실체(失體)하였구. 남의 집 처녀더러 또 해라하였구나. 우리가 입으로 조선말은 하더라도 마음에는 서양 문명한 풍속이 젖었으니, ㉢우리는 혼인을 하여도 서양 사람과 같이 부모의 명령을 좇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부부 될 마음이 있으면 서로 직접 하여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러나 우선 말부터 영어로 수작하자. 조선말로 하면 입에 익은 말로 외짝 해라하기 불안하다.”

하면서 구 씨가 영어로 말을 하는데, 구 씨의 학문은 옥련이보다 대단히 높으나 영어는 옥련이가 구 씨의 선생 노릇이라도 할 만한 터이라. 그러나 구 씨는 서투른 영어로 수작을 하는데, ㉣옥련이는 조선말로 단정히 대답하더라.

김관일은 딸의 혼인 언론을 하다가 구 씨가 서양 풍속으로 직접 언론하자 하는 서슬에 ㉤옥련의 혼인 언약에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이 가만히 앉았더라.

옥련이는 아무리 조선 계집아이이나 학문도 있고 개명한 생각도 있고, 동서양으로 다니면서 문견(聞見)이 높은지라. 서슴지 아니하고 혼인 언론 대답을 하는 데, 구 씨의 소청이 있으니, 그 소청인즉 옥련이가 구 씨와 같이 몇 해든지 공부를 더 힘써 하여 학문이 유여한 후에 고국에 돌아가서 결혼하고, 옥련이는 조선 부인 교육을 말아 하기를 청하는 유지(有志)한 말이라. 옥련이가 구 씨의 권하는 말을 듣고

조선 부인 교육할 마음이 간절하여 구 씨와 혼인 언약을 맺으니, 구 씨의 목적은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를 독일국(獨逸國)같이 연방도를 삼되, 일본과 만주를 한데 합하여 문명한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비사맥 같은 마음이요, 옥련이는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 부인의 지식을 넓혀서 남자에게 압제받지 말고 남자와 동등 권리를 찾게 하며, 또 부인도 나라에 유익한 백성이 되고 사회상에 명예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할 마음이라.

세상에 제 목적을 제가 자기하는 것같이 즐거운 일은 다시 없는지라. 구완서와 옥련이가 나이 어려서 외국에 간 사람들이라. 조선 사람이 이렇게 야만되고 이렇게 용렬한 줄을 모르고, 구 씨든지 옥련이든지 조선에 돌아오는 날은 조선도 유지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학문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를 찬성하여 구 씨도 목적대로 되고 옥련이도 제 목적대로 조선 부인이 일제히 내 교육을 받아서 날 날이 나와 같은 학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려니 생각하고, 일변으로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제 나라 형편 모르고 외국에 유학한 소년 학생의 기에서 나오는 마음이라.

- 이인직, <혈의 누>

**10. 밑글의 ㉠~㉤에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 및 가치관(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활발한 구완서의 성격을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구완서의 사려 깊은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 ③ ㉢: 구완서는 의지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자유연애 사상을 가진 인물이다.
- ④ ㉣: 옥련의 소신 있고 차분한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 ⑤ ㉤: 김관일의 상대방을 존중하는 성격이 드러난다.

11. 다음 <보기>에서 밑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보기>

- ㉠: 개화기 시대의 모습과 당시 지식인들의 계몽의지가 드러난다.
- ㉡: 조선 여성들을 교육하겠다는 뜻을 품은 옥련을 통해 신교육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 ㉢: 구완서가 옥련에게 하는 말에서 개화기 남녀평등과 자유연애 사상이 드러난다.
- ㉣: 당시에 여성의 교육 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낮았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 이 소설을 통해 완전한 언문일치제가 완성되었다.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정한 마음 없이 정거장으로 나가니, 그때 일번(一番) 기차에 떠나려 하는 행인들이 정거장으로 모여드는지라. 옥련의 마음에 동경이나 가고 싶으나 동경까지 갈 기차표 살 돈은 없고 다만 이십 전이 있는지라. 옥련이가 대판만 떠나서 어디든지 가면 남의 집에 ㉠봉공(奉公)하고 있을 터이라 결심하고 자 목 정거장까지 가는 기차표를 사서 일번 기차를 타니, 삼등차에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옥련이가 앉을 곳을 얻지 못하고 섰는데 등 뒤에서 웬 서생이 혼자 중얼중얼하는 말이,

“웬 계집아이가 남의 앞에 와 섰다.”

하는 소리에 옥련이가 돌아다보니 나이 열 칠팔 세 되고 얼굴은 별에 그을려 익은 복숭아 같고 코는 우뚝 서고 눈은 만판 정신이 있는데, 입기는 양복을 입었으나 양복은 처음 입은 사람같이 서툴러 보이는 지라. 옥련이가 돌아다보는 것을 보더니 또 조선말로 혼자 하는 말이,

“그 계집아이 똑똑하다. 재주 있겠다. ㉡우리나라

계집아이 같으면 저러한 것들이 판판이 놀겠지. 여 기서는 저런 것들도 모두 공부를 한다 하니 저것은 무엇하는 계집아이인지.”

그러한 소리를 곁의 사람이 아무도 못 알아들으나 옥련의 귀에는 알아들을 뿐이 아니라, 대판 온 지 몇 해 만에 고국 말소리를 처음 듣는지라. 반갑기가 측량없으나, 계집아이 마음이라 먼저 말하기도 부끄러운 생각이 있어서 말을 못 하고, 옥련이도 혼잣말로 서생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말이,

“어디 가 좀 앉을 곳이 있어야지, 서서 갈 수가 있나.”

하는 소리에, 뒤에 있던 서생이 이상히 여겨서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조선 사람인가, 나는 일본 계집아리로 보았더니 조선말을 하네?”

하더니 서슴지 아니하고 말을 묻는다.

“이애, 네가 조선 사람이 아니냐?”

“네, 조선 사람이오.”

“그러면 몇 살에 와서 몇 해가 되었느냐?”

“일곱 살에 와서 지금 열한 살이 되었소.”

“와서 무엇 하였느냐?”

“심상소학교에서 공부하고 어제가 졸업식 하던 날이오.”

“너는 나보다 낫구나. 나는 이제 공부하러 미국으로 가려 하는데, 말도 다르고 글도 다른 미국을 가면 글자 한 자 모르고 말 한마디 모르는 사람이 어찌 고생을 할는지, 너는 일본에 온 지가 사오 년이 되었다 하니 이제는 고생을 다 면하였겠구나. 어린아이가 공부하러 여기까지 왔으니 참 가룩한 노릇이다.”

“당초에 여기 올 때에 공부할 마음으로 왔으면 칭찬을 들어도 부끄럽지 아니하겠으나, ㉢운수 불행하여 고생길로 여기까지 왔으니 칭찬을 들어도…….”

하면서 목이 메는 소리로 눈에 눈물이 ㉣가랑가랑하여 고개를 살짝 수그린다.

서생이 물끄러미 보고 서로 아무 말이 없는데, 정거장 호각 한 소리에 기차 화통에서 흑운(黑雲) 같은 연기를 훅훅 내뿜으면서 기차가 달아난다.

(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 같은 불효의 딸을 만나 보시고 기쁜신 마음이 있거든 구 씨를 찾아보시고 ㉤치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관일이가 그 말을 듣더니, 그 길로 옥련이를 데리고 구 씨의 유하는 처소로 찾아가니, 구 씨는 김관

## 정답 및 해설

### 내신형 기출 문제

#### 1. 정답 ②

윗글의 '정거장', '미국 화성돈' 등을 통해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조선', '일청 전쟁'을 통해 시간적 배경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윗글에는 '옥련'이나 '구완서'의 저항 의식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 ③ 윗글에는 시간의 흐름대로 가는 순행적 구성이 나타난다.
- ④ 윗글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로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심리와 대화를 전달하며 전개된다.
- ⑤ 윗글의 '기차'가 '옥련'과 '구완서'의 만남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연성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다.

#### 2. 정답 ④

윗글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전지자의 위치에서 서사 세계에 개입하는 가운데 '옥련'과 '구완서' 등의 의식과 행위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윗글에는 서술자를 교체하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지도 않다.
- ② 윗글은 서술자가 관찰자의 위치가 아닌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꿰뚫어 보는 신의 위치에서 인물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 ③ 윗글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전지자의 위치인 것은 맞으나 서사 세계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인물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 ⑤ 윗글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전지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맞으나 서사 세계에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3. 정답 ①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 부분은 (가) 부분이 아닌

(나) 부분의 '세상에 제 목적 ~ 마음이라.'까지이기에 해당 기호는 적절하지 않다.

- ② ㉠: (나)의 '간단한 두 마디뿐이라.', '노릇이라도 할 만한 터이라'를 통해 해당 기호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③ ㉡: (가)의 전체 서사와 '나이 열 칠팔 세 ~ 정신이 있는데'의 묘사를 통해 해당 기호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④ ㉢: (가)의 '기차'를 통해 만남의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⑤ ㉣: (나)의 '옥련이는 공부를 힘써 하여 ~ 교육할 마음이라.'를 통해 해당 기호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 4. 정답 ④

(가)의 '내가 미국에 온 지가 십 년이나 되었으나 영문에 서둘러서 보기를 잘못 보았다.'를 통해 김관일이 딸의 생사를 모른 채 미국에 온 지 십 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① (가)의 '그때 옥련이가 고등 소학교에서 졸업 우등생으로 옥련의 이름과 옥련의 사적이 화성돈 신문에 났는데, 그 신문을 보고 이상히 기뻐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어찌 그렇게 기뻐던지 부지중 눈물이 쏟아진다.'에서 구완서가 아닌 김관일이 옥련의 사적이 실린 기사를 보고 기뻐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윗글의 '내가 상금 탈 공은 없으니 상금은 원치 아니하나 귀양(貴孃)을 배행하여 가서 부녀 서로 만나 기뻐하시는 모양 보았으면 나도 이 호텔에서 몇해 간 귀양을 모시고 있던 정분에 귀양을 따라 기뻐하고자 합니다.'를 통해 보이가 김관일을 옥련에게 안내한 후 상금을 받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가)의 '김 씨가 그 학교에 찾아가니, 그때는 그 학교에서 학도 졸업식 후의 서중 휴학이라, 학교에 아무도 없는고로 물을 곳이 없는지라, 김 씨가 옥련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더라.'를 통해 구완서가 아닌 김관일이 방학 중에 옥련이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갔음을 알 수 있다.
- ⑤ (가)의 '옥련이가 졸업하던 날에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호텔로 돌아가니, 주인은 치하하면서 옥련의 얼굴빛을 이상히 보더라. / 옥련이가 수심이 첩첩한 모양으로 저녁 요리도 먹지 아니하고 서산에 떨어지는 해를 치어다보며 탄식하더라.'를 통해 해

당 선지가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정답] ②

ㄱ. (가)의 '하루도 학교에 아니 가는 날이 없이 다니며 공부를 하는데, 재주 있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그 학교 여학생 중에는 제일 칭찬을 듣는지라.'를 통해 해당 기호가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ㄴ. (나)의 '옥련이가 일곱 살에 응석하던 마음이 새로이 나서 부친의 무릎 위에 얼굴을 꼭 숙이고 소리 없이 우는데, 김관일의 눈물은 옥련의 머리 뒤에 떨어지고, 옥련의 눈물은 그 부친의 무릎을 적신다.'를 통해 해당 기호가 적절함을 확인할 수 있다.

ㄷ. 뒷글에는 김관일이 옥련을 하대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기에 해당 기호는 적절하지 않다.

ㄹ. 옥련이의 기쁜 일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보이의 태도를 통해서 보이의 성격을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정답] ④

뒷글에서 만남의 개연성을 드러내는 소재로는 '기차', '신문', '광고'와 같은 것들이 있다. 따라서 만남의 개연성을 드러내는 소재로 적절한 것은 ④이다.

①, ②, ③, ⑤ 나머지는 만남의 개연성을 드러내는 소재로 적절하지 않다.

7. [정답] ④

㉠: 나라나 사회를 위하여 힘써 일한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열심히 일하다.'라는 뜻이다.

㉡: 사실을 있는 대로 딱 잘라서 말한다는 뜻으로 적절하다.

㉢: 오사카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은 '대판'이고 '자목'은 '오사카'에 있는 이바라키시이다.

㉣: 오사카에 있는 이바라키시는 '자목'이고 오사카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을 '대판'이라고 한다.

㉤: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안 놓여 여러 가지로 생각하거나 걱정하는 게 많다는 뜻이다.

㉥: 더운 날씨를 고려한 여름 방학이란 뜻이다.

8. [정답] ③

㉠: 구완서의 말로 '우리나라 계집'은 '조선 여성'을 의미하여 조선 여성들이 공부에 힘쓰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판 의식이 담겨 있는 대목이기

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① ㉡: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일 뿐 근대 서구 문물로, 인물들 간의 만남에 개연성을 부여해 주는 소재는 아니다.

② ㉢: 김관일의 모습이 아닌 구완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④ ㉣: 서생은 옥련이 조선말을 쓰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고 질문하는 것으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⑤ ㉤: 옥련은 우연히 기차간에서 미국 유학을 떠나는 구완서를 만나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기에 워싱턴을 뜻하는 '화성돈'은 옥련이 가려는 목적지가 아니며 옥련과 서생의 이별을 암시하는 것도 아니다.

9. [정답] ①

이 부장: '풍상'은 '많이 겪은 세상의 어려움과 고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에 '시련과 고난'으로 바꾸어 주는 것은 적절하다.

최 차장: 저는 '필경'은 '끝장에 가서는'이라는 뜻으로 '마침내'라고 바꾸어 주는 것은 적절하다.

박 대리: '다심하다'는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안 놓여 여러 가지로 생각하거나 걱정하는 게 많다는 뜻'이기에 박 대리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이 사원: '질언하다'는 '사실을 있는 대로 딱 잘라서 말하다.'의 뜻이기에 이 사원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10. [정답] ①

㉠: 활발한 구완서의 성격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는 것이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② ㉡: 해당 구절을 통해서 구완서는 체면이나 면목이 없다고 먼저 말하며 사려 깊은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③ ㉢: 구완서는 서로 직접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하며 의지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유연애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④ ㉣: 옥련이 조선말로 대답하는 것을 통해 소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고 단정히 대답하는 것을 통해 그녀의 지혜로운 성격을 엿볼 수 있다.

⑤ ㉤: 김관일은 결혼에 관한 두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11. 정답 ①

㉠: 당시 개화기 시대의 자유연애 사상의 모습이 드러나며 '구 씨의 목적은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를 독일국(獨逸國)같이 연방도를 삼되, 일본과 만주를 한데 합하여 문명한 강국을 만들고 자 하는 비사맥 같은 마음이요, 옥련이는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 부인의 지식을 넓혀서 남자에게 압제받지 말고 남자와 동등 권리를 찾게 하며'를 통해 지식인들의 계몽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옥련이는 공부를 힘써 하여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 부인의 지식을 넓혀서 남자에게 압제받지 말고 남자와 동등 권리를 찾게 하며, 또 부인도 나라에 유익한 백성이 되고 사회상에 명예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할 마음이라.'를 통해 신교육의 필요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우리는 혼인을 하여도 서양 사람과 같이 부모의 명령을 좇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부부 될 마음이 있으면 서로 직접 하여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를 통해 개화기 남녀평등과 자유연애 사상이 드러난다.

㉣: 옥련은 귀국한 뒤에 '우리나라 부인의 지식을 넓혀서 남자에게 압제받지 말고 남자와 동등 권리를 찾게 하며, 또 부인도 나라에 유익한 백성이 되고 사회상에 명예 있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할 마음을 갖고 있다. 이는 당시에 여성의 교육 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낮았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 소설은 언문일치의 구어체적 문체가 일부 사용되었기에 언문일치가 가까워진 것일 뿐 완전한 언문일치체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정답 ③

㉠: 구완서의 성격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는 부분으로 구 씨가 말과 행동에 거침이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① ㉡: 해당 구절에는 조선 여성들이 공부에 힘쓰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 옥련이 운수가 불행하여 고생길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에서 온전히 공부를 하려는 마음으

로 일본에 온 것이 아님과 고생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 옥련이 조선말로 대답하는 것을 통해 소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고 단정히 대답하는 것을 통해 그녀의 지혜로운 성격을 엿볼 수 있다.

⑤ ㉤: 당시 조선 사람들의 사회적, 문화적 수준이 낮은 상태를 지적하는 말로 우리 민족의 수준을 일반적으로 폄하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13. 정답 ④

㉠: '실체(失體)'는 체면이나 면목을 잃었다는 뜻이기에 해당 선지가 적절하다.

① ㉡: 나라나 사회를 위하여 힘써 일한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열심히 일하다.'라는 뜻이다.

② ㉢: 눈에 눈물이 넘칠 듯이 가득 괴어 있다는 뜻이다.

③ ㉣: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⑤ ㉤: 어떤 일에 뜻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수능형 기출 문제

1. 정답 ④

해당 작품은 일제 강점기 시기에 운동주가 쓴 작품으로 투철한 역사인식을 동반한 끊임없는 자아성찰이 그 주제이기에 위 소설 작가에게 들려줄 만한 시로 적절하다.

① 해당 작품은 화자의 사랑을 사소하다는 반어적 표현으로 드러낸 작품으로 위 소설 작가에게 들려줄 만한 시로 적절하지 않다.

② 해당 작품은 배를 매어 본 경험을 통해 사랑의 시작과 본질에 대해 말하고 있기에 위 소설 작가에게 들려줄 만한 시로 적절하지 않다.

③ 해당 작품은 명명행위를 통한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위 소설 작가에게 들려줄 만한 시로 적절하지 않다.

⑤ 해당 작품은 슬픔의 승화를 통한 순결한 삶의 추구를 드러내기에 위 소설 작가에게 들려줄 만한 시로 적절하지 않다.

2. 정답 ③

윗글과 <보기>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